

월출산 국립공원



韓貞圭 | 본회 상임이사
수필가

한반도 서남쪽 끝자락 가까이에 우뚝 솟은 월출산은 영암군의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남쪽에 장흥군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진군 서쪽으로는 해남군이 있다. 산 능선위에 걸쳐 떠오르는 달의 모습을 보고 월출산이라 하였다. 또 크고 작은 빼어난 화강암(花崗岩) 봉우리들이 금강산을 닮았다 하여 소금강산이라고도 흑자는 부르고 있다.

아기자기한 화강암 봉우리며 계절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 경관이 참으로 아름답다. 월출산은 국립공원중 하나이다.

월출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뻗은 산 능선이 뾰족뾰족한 바위들로 하늘을 찌를 듯이 장엄한 자태를 하고 있다. 영암하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월출산 이야기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곳이 영암이냐고 한다. 영암은 모르면서 월출산을 아는 것은 가수 하춘화 씨의 노래 중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월출산 위에 둥근달이 뜬다”는 노래말이 있다. 아마도 그 노래말 때문에 월출산이 널리 알려졌을 거로 생각된다.

월출산 천황봉은 해발 809미터이다. 월출산의 주요 봉우리로는 743미터 높이의 향로봉, 738미터의 구정봉, 510미터의 장군봉, 408미터의 사자봉이 있다. 또한 향로봉에서 서북쪽 방향에 420미터의

노적봉이 있으며 월출산 봉우리는 아니면서도 국립공원 월출산에 포함되어 있는 613미터의 국사봉과 491미터의 주지봉도 있다.

월출산은 산세가 험준하고 암석이 많이 노출된 암산이다. 때문에 등산을 하는 데는 무척 조심스러운 산이다. 가장 좋은 등산로는 천황사에서 도갑사 쪽으로 능선을 따라 동서로 이어져 있는 코스다. 능선은 크고 작은 바위들이 얽혀 쌓여 있어서 그 바위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건지 않았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험도 크다.

특히 월출산의 겨울 등산은 더욱 위험하다. 눈이 쌓였을 때는 물론 썩썩 얼어붙은 빙판은 아이젠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젠을 하고 눈 덮인 바위 위를 걸을 때에는 뒤뚱거리고 걷기가 불편하다.

가을의 월출산은 바위 틈새에 끼어 사는 곰솔이며 줄사철이 어울어진 풍광이 더욱 아름답다.

도갑사 쪽에서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성전면 무위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와 만나는 미왕재 근처에 억새밭이 있다. 억새꽃이 필 때면 눈 덮인 겨울 산 같다. 하얗게 핀 억새꽃, 바람이 불어 옆으로 흔들리면 은빛 물결을 친다.

봄이면 진달래꽃도 볼 만하다. 바위 사이사이에

피어 있는 꽃들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화려하다.

산자락 군데군데에 무리지어 자생하는 열레지와 원추리 또한 볼만하다. 도갑사 주변의 동백꽃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이다. 벚꽃이 피어 있는 거리도 제법 볼거리다. 오뉴월 신록이 우거지고 밤이 깊어지면 계곡물 소리며 바람 소리가 요란하다. 여름밤의 도갑사는 개구리 우는 소리인지 노래 소리인지 온통 그 소리가 오페라 경연장을 방불하게 한다.

월출산에는 양서류 파충류 및 포유류 등 32종의 동물과 관속식물 658종이 분포되어 있다. 양서류는 도롱뇽,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맹꽁이, 두꺼비, 움개구리, 산개구리 등이 있고, 파충류는 부자치와 유혈목이 제법 많이 살고 있으며, 꽃장지뱀, 누룩뱀, 쇠살모사, 능구렁이, 살모사, 대륙유혈목, 구렁이가 있으며 포유류는 다람쥐, 집박쥐, 노루, 멧돼지, 족제비, 오소리, 너구리, 삵, 등줄쥐, 집쥐, 생쥐, 멧토끼, 두더지, 고라니가 있다. 그중 고라니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식물은 관속식물 120과 391속 574종 77변종 7품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이할만한 식물로는 끈끈이주걱, 땅귀개, 이삭귀개, 산닥나무, 붉은가시나무가 있으며 그 외에도 소나무, 소사나무, 신갈나무, 피나무 등이 혼생하고 있으며 진달래, 싸리, 조릿대, 노랑제비꽃, 열레지, 원추리, 새, 곰솔, 까치박달, 서어나무, 당단풍, 노각나무, 작살나무, 화살나무, 고추나무, 생강나무, 장구밥나무, 사스레피나무, 차나무, 노박덩굴, 청가시덩굴, 청미래덩굴, 땃대, 덩굴사위질빵, 마삭줄, 줄사철나무, 벌등골나무, 짚신나물, 단풍취, 배풍, 선물나물개시호, 방아풀, 골무꽃, 제비쑥, 이고들빼기, 애기나리, 왕대, 이대, 동백나무, 대나무, 국수나무, 조팝나무, 조쪽사리, 붉나무, 짚레꽃, 산초나무, 양지꽃, 고마리, 흰여뀌, 이삭여뀌, 세삼, 메꽃, 명아주, 오이풀, 도둑놈이갈고리, 나비나물, 매듭풀, 잠자리난초, 숫잔대, 물봉선, 달맞이꽃, 개망초, 미국자리공, 족

제비싸리, 돼지풀, 개쑥갓, 비짜리국화, 양미역취 등이 자생하고 있다.

월출산의 유물 유적으로는 구정봉 정상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국보 144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그 불상의 총 높이는 8.5미터이다. 불상은 자연적으로 된 사다리꼴 방형에 암벽의 양각으로 새겨졌다. 불상이 만들어진 것은 10세기 초 즈음으로 보인다. 또한 도갑사 경내 대웅전에서 뒤편으로 숲 속 길을 지나 150여 미터쯤에 위치한 미륵전에 봉안되어 있는 보물 89호인 도갑사 석조 여래좌상이 있다.

그리고 구정봉에서 직선거리로 2.5킬로미터쯤 떨어진 산봉우리 밑에 지방유형문화재 149호인 월곡리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이 불상이 있는 암자가 몽령암이다. 이 불상은 30여 미터 되는 높은 암벽에 새겨져 있다. 또 도갑사에는 대웅전 바로 앞에 지방유형문화재 151호 5층 석탑이 있다. 석탑은 단층 기단에 5층의 탑신과 옥개석을 갖추었고 상륜에 노반과 보주를 구유하고 있다. 이 탑은 고려시대 석탑의 형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도갑사 해탈문도 국보 5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월출산과 월출산을 끼고 있는 주변에는 많은 유물 유적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도갑리 산 114의 4번지에 있는 지방 민속자료 18호 국장생, 동구림리의 지방 민속자료 19호인 황장생, 서구림의 지방 민속자료 20호 장생, 그리고 지방 기념물 119호 엄길리 암각 매항비가 있으며, 보물로 지정된 영암읍 회문리 용암사지 3층 석탑, 도갑사 동자상, 영암읍 춘향리 성품사지 5층 석탑, 기념물 20호 왕인박사 유적지, 천연기념물인 군서면 느티나무, 도지정 유물로는 도갑사 도선수미비, 영암 학계리 석불입상, 월곡리 마애여래좌상, 도갑사 석조, 도갑사 수미왕사비, 도갑사 수미왕사 진영, 도갑사 도선국사 진영, 녹동서원 소장 목판 및 고문서가 있으며 왕인박사 유적지도 도지정 기념

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월출산 남쪽의 강진군 성전면 소재의 무위사에도 극락전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선각대사 편광탑비가 보물 507호로 지정되어 있다.

월출산은 다양한 형상을 하고 있는 화강암의 봉우리와 수백 종에 이르는 희귀 식물이며 과충류를 비롯한 수십 종의 동물 그리고 각종의 유적 유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어느 한 곳을 지나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다.

월출산은 명산다운 또 다른 면이 있다.

오늘의 일본문화를 꽃피게 한 왕인박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왕인박사는 월출산 천황봉 서쪽 끝 지금의 왕인박사 유적지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풍수지리의 선각자이신 도선국사가 태어난 곳 또한 영암 월출산의 주변마을이다. 월출산은 한번쯤 꼭 가볼만한 곳이다.

월출산 등산로는 도갑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으며 영암읍에서 강진 완도로 가는 국도를 따라 자동차로 10여분 달리다 우측에 월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나온다. 그곳에서 천황사를 거쳐 등산로가 있고 또 다른 등산로로는 강진군 성전면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성전 쪽에서는 무위사 뒷길로 올라가는 길과 월출청소년 자연학습원에서 구정봉 또는 천황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등산하기에는 도갑사에서 출발 본봉을 지나 향로봉을 거쳐 천황봉으로 해서 천황사로 하산하는 코스다.

광주나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에서나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면 당일 등산이 가능하다. 그 외의 지역은 숙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된다. 숙박을 하게 된다면 영암읍내 여관에서 쉬어도 좋겠지만 도갑사 부근에 깨끗한 관광호텔이 있으니 그곳에서 숙박하면서 봄이면 새싹 돌아나는 비릿한 풀내음이며 동백꽃과 벚꽃이 어우러진 꽃향기에 취해도 보고 겨울이면 산골을 따라 매섭게 부는 바람 소리와 절간 처마끝에 매달린 풍경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도 하고 여름이면 한적한 산골 물소리며 새소리에 함께 어우러져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이다.

영암은 맛의 고장이기도 하다.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암의 특산물이 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희귀하게 되어버렸지만 운이 좋으면 그것들을 맛볼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어란”이란 술안주다. 어란은 송어알 말린 것이다. 영암 어란은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새발낙지, 영암 미암에서 잡은 낙지는 빨이 좋아서인지 다른 지역 새발낙지에 비해 쫄깃쫄깃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도포 해창의 짬뽕어탕 또한 유명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란만은 꼭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월출산 천황봉 정상에서 목포의 유달산도 바라보고, 해남의 두륜산도 건너다보고, 강진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하였던 곳 다원도 먼 발치지만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아라. 꼭 그러기를 권한다.

